

숨은그림찾기 < 85 >



찾아보세요 사람 옆 얼굴, 담배 파이프, 셔플록, 다리미, 피리미, 왕관, 몽당연필, 펜촉, A자

100m 달리기

동물 나라에서 100m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사자·치타·호랑이·표범·타조 등 선수들이 다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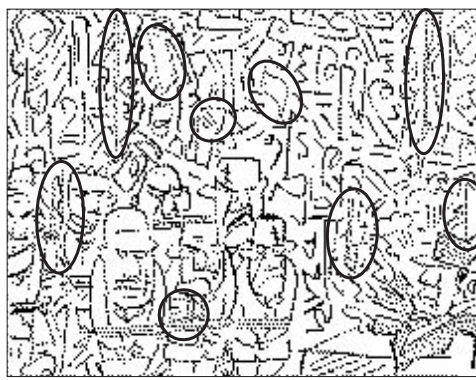
그런데 그들 옆에 아주 조그만 달팽이가 서 있었다.

이를 본 치타가 웃으며 물었다.

“달팽이, 너도 참가할거야?”

그러자 달팽이가 대답했다.

“난 심판이다. 기다려, 100m 줄 그어야 하나 까”



지난주 정답

셔플록, 팬이, 화살, 송곳, 새, 바늘, 종이배, 집사, 칫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김흥덕(광주시 동구 소태동) 신은주(영암군 영암읍)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손기정·황영조 올림픽 마라톤 제패

25년전인 1992년 8월 9일 TV에 매달려 밤을 지새 온 국민은 감격에 목이 메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피날레를 장식한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 국민들은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본주의 메인스타디움에 들어서 1위로 골인하자 서로 일제안고 기뻐하며 환호와 탄성을 외쳤다. 모두가 월계관을 쓴 듯, 모두가 금메달을 딴 듯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었다.

전국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국민들을 더욱 흥분시킨 것은 지난 1936년 베를린 올림픽(11회)에서 손기정이 일장기를 달고 우승한 바로 그날이었다는 점 때문이다. 손기정은 당시 2시간 29분 19초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 한국 남자의 기상을 세계에 알렸지만 손기정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달려 있었고 이름까지도 일본식인 '기테이 손'이어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삼켜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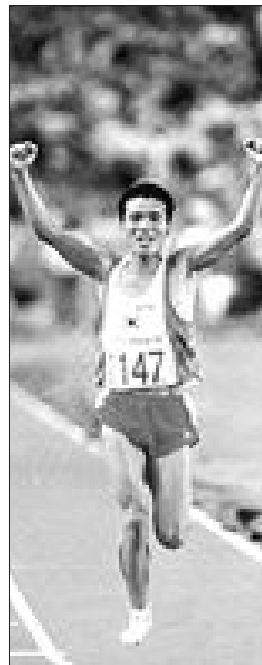
이 때문에 황영조가 마지막까지 대결을 벌였던 일본의 모리시타를 특유의 끈기와 정신력으로 제치고 2시간13분23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메인스타디움 바다에 이르러 감격의 눈물을 흘리자 시민들은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본보도 당시 '56년전 바로 그날 '일장기 한(恨)'이제야 풀었다', '한국 마라톤 세계제패 하던날'이라는 제목으로 '광주시 양동시장, 북구 농산물 공판장 새벽 일터에 나선 시민들과 새벽 열차 이용 승객들은 하던 일, 가던 발길을 잠시 멈추고 '만세 만세 만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손기정·황영조가 56년만에 바르셀로나에



1936년 8월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 월계관을 쓴 손기정 선수. 사진 오른쪽은 1992년 8월9일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 스타디움에 1위로 골인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서 태극 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거머쥐는 장면을 지켜봐 더욱 감격스런 현장을 연출했다.

고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에 이어 한국 마라톤 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황영조 선수는 지난 1991년 유니버시아드에서 우승하고 1992년 한국 선수촌 처음 2시간 8분대에 진입, 한국 마라톤의 대들보로 꼽혔다.

이후 한국 남자 마라톤은 이봉수가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을 따는 등 국제 무대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문제는 남자 마라톤을 제외하면 육상 성적이 초라하다는데 있다.

1년 뒤인 2008년 8월 8일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 한국 선수들이 마라톤을 비롯한 트랙·필드 경기에서도 메달을 거머쥐었으면 하는 것,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76. 미국 프로야구의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홈런 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개인통산 755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문 최고기록 보유자였던 헝크 아론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지난 1986년 데뷔해 22시즌 만에 이룬 대 기록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 배리 본즈 ② 이승엽 ③ 최희섭 ④ 박찬호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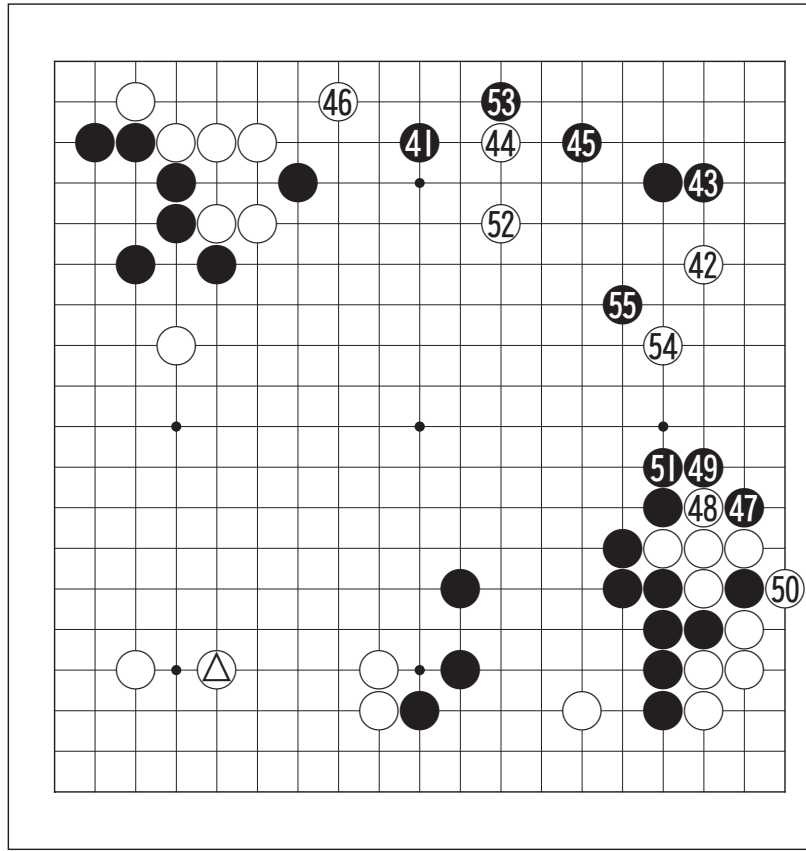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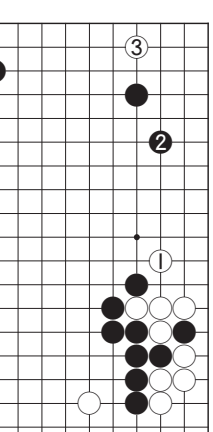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8일 (음력 6월 26일 甲戌)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12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of August 8th.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3회전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박정규 5단도 압박감을 느꼈던지 백 42로 걸치고 44로 상변을 쳐들어

고난을 자초하는 백 3보(41~55)

白 박정규 5단 (KT전남본부)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백 41로 굳혀서 백이 편하게 보이는 국면이다. 그러나 흑도 전체적으로 두렵다. 흑 41을 놓고 보니 갑자기 흑의 세력이

가 등 바빠졌다. 흑 43의 철수는 매우 적절하면서도 정중동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다. 백이 44, 46 등으로 양쪽에서 바빠 움직이고 있으나 이것이 또 흑 53 등의 적절한 공격을 불러 고난을 자초하고 있다. 백 42로는 '참고도'의 백 1로 가만히 지켜두는 것이 좋았다. 흑 2로 지키면 그때 3 정도로 삭감한다. 흑 47로 두껍게 틀어막아 놓고 나서 흑 55까지 흑이 호된 공격을 받아서 백의 위기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한상훈, 신예연승전 결선 좌절

한상훈 초단이 지난 6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7기 오스람 코리아배 신예연승 최강전에서 박승화 초단을 264수 끝에 흑 1집 반으로 제쳤으나 이어 열린 권형진 초단과의 대결에선 208수 끝에 백 불계패를 당해 결선 진출이 좌절됐다.

현재까지 본선 23국을 소화한 오스람 코리아배는 25국까지 두 판만을 남겨 놓고 있으며, 강동윤 7단, 최병환 2단, 박승철 5단, 김혜민 4단, 진동규 3단이 결선에 올라있다.

오스람코리아배 신예연승최강전은 만 25세, 5단 이하의 기사가 참가하며 예선을 통과한 25명의 기사가 본선에서 연승전을 펼친다.

굿모닝 잉글리쉬 <965> Please fill out this form. 이 양식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A: What's this? B: It's an embarkation card. Please fill out this form. A: Excuse me. What does "duration of stay" mean? B: Well, that means how many days or months you are going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오하오우 니혼고 <965> でも、ロボットの話(はなし)はちょっと... 그래도、ロボット 이야기는 좀... A: トランスフォーマー見(み)ましたか。 B: アニメが原作(げんさく)だから幼稚(ようち)もんじゃありませんか。 A: 私もそう思(おも)いましたけど、すごかったですよ。一押(お)しです。 B: でも、ロボットの話(はなし)はちょっと...

니하오 쑹구위 <155> 你在上海工作压力大不大 너는 상해에서 일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 A: 听说, 在日本职员总是加班。 Tingshuo, zai riben zhiyuan zongshi jiaiban. B: 是这样, 所以压力都很大。 Shi zheyang, suyiyi yuati dou hen da. A: 你在上海工作压力大不大? Ni zai shanghai gongzuo yeli da budà? B: 压力大, 不过收入也不少。 Ya li da, buguo shouru ye bushao.

한자 이야기 <582> 偷香(투향) 훔칠 투, 향기 향 투향(偷香)은 '향을 훔친다'는 의미로, 남녀 간에 사사롭게 정을 통함을 비유한다. 현재는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를 할 수 있지만, 전통시대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중매(仲媒) 없이 남녀가 만날 수가 없었다. 투향은 그런 전통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